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막

세계 20여개국 기업인·바이어 등 참여 세계 발효식품 집중 조명... 29일까지 진행

전 세계 발효식품의 비즈니스 향연 '제16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2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행사의 서막을 열었다.

행사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세계 20여개국의 기업인과 바이어, 대사관 상무관을 비롯해 국내외 방송매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

과 세계의 발효식품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김동수 원장(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언론과 바이어들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지역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행사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번 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되고 국제네트워킹 확대 성과가 곧 식품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발효식품엑스포는 세계 21개국의 다양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

하여 오는 29일까지 5일간 생생한 비즈니스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 행사에 바이어로 참가하는 미국 대형마켓인 Food Bazaar사의 Kevin Kim 대표는 "작년에 방문한 결과 엑스포를 통해 질 좋고 우수한 한국 상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획득하고 발굴했다. 좋은 한국 상품들이 눈에 띄는데 향후 거래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기업관에 전시업체로 참여하는 러시아 코리아나 프리미엄사의 엘레나 파크 대표는 "발효엑스포가 기존 식품전시회와는 다르게 바이어 거래 외에도 소비자들의 반응을 현장에서 즉각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가하게 되었다.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루마니아 유로프로 임포트 하우스사의 테오도르 잠피르 이사는 "지난해 참가했던 기업들로부터 참가객도 많고 매우 성과가 좋았다는 얘기를 듣고 참가하게 되었다. 많은 바이어들과 한국소비자들을 만나게 되어 설렌다"고 말했다.

제16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개막식을 필두로 첫날 B2B 무역상담회를 비롯해 오는 29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김진성 기자



제16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막식이 25일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 특설무대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산업 초읽기

완주군, 전북도·현대차 전주공장 등과 상생발전 실무협의회

완주군의 친환경 자동차산업 추진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25일 완주군은 자동차산업 상생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주)아이씨엘씨등 주요 부품협력사와 안호영 국회의원실 비서관, 전라북도 투자유치과, 산업진흥과 담당 및 (재)전북테크노파크, (재)자동차융합기술원, 키스트 전북분원 등이 참여했다.

주요 연구기관과 우석대학교 등 국내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면서 실무적인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특히, 이날 회의는 완주군 산업단지 내 제1호 수소충전소 설치 검토, 국내 기존 부품기업의 육성 및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도입방안, 지역자동차사주기 운동 방안 등 지역의 자동차 산업활성화를 위해 도출된 안전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

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이날 실무협의회에 보낸 축전을 통해 "도내 자동차산업의 침체와 상용차 생산량 감소에 따른 다양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에 자동차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활동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관련 기업 모두가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소인프라 등 친환경 산업구조를 정착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협의회를 주재한 전영선 완주군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완주군 자동차산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지역산업을 견인할 실질적인 협의회가 되도록 공동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갈 예정이다"며 "친환경자동차 확산 등 산업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KOICA 찾아가는 조달 컨설팅' 성료

전북대 국제개발협력센터

도내 소재 기업별로

1대 1 맞춤형 컨설팅 진행

전북대학교에 소재하고 있는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이하 센터·센터장 이육현)는 25일 센터 교육관에서 'KOICA 찾아가는 조달 컨설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현재 전 세계 국제개발원조(ODA) 시장 규모는 1,953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고, 한국의 ODA 예산도 2017년 3조 400억 원을 넘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KOICA는 연간 200여건, 약 3,000억 원 규모로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KOICA 찾아가는 조달 컨설팅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KOICA 사업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전북지역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KOICA 원조사업 시장 진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

KOICA 조달계약팀과 기술평가팀에



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해외 원조조달 계획과 기술평가 방법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업체별 1:1 컨설팅을 진행해 좋은 정보 공유의 장이 됐다.

한편,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는 전라북도-전북대-KOICA간 3자 협정에 따라 전북대학교 내에 설립돼 전북지역의 ODA 인지도 확산과 전북지역 기업·단체의 ODA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문 대통령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

“경찰 희생·헌신에 보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민을 위한 경찰의 희생과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의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거행된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해마다 평균 16명의 경찰관이 순직하고, 1800여명의 부상을 당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경찰의 일상이 된 ‘격무’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관 2만 명 충원 목표에 따라 경찰인력을 꾸준히 증원할 것이다. 경찰조직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위직에 편중된 직급구조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인력 꾸준히 증원... 하위직 편중 직급 구조도 개선 공권력 집행으로 국민·경찰 모두 피해자 되는 일 없을 것 처우개선·치안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할 것”

지난해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경찰의 날 기념식은 올해 백범김구기념관으로 장소를 옮겨 거행됐다. 1919년 8월12일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現 경찰청장)에 취임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이곳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치르게 되어 참으로 뜻 깊다”며 “99년 전인 1919년 8월12일,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취임했다. 임시정부의 문지기 가 되겠다는 각오로 대한민국 경찰의 출범을 알렸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각에도 그의 후예들이 전국의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자신의 안위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현장의 영웅’들을 보며 김구 선생도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경찰은 한 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왔다. 올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자 ‘역대 가장 안전한 올림픽’이라는 세계의 찬사를 받았

다”며 “연인원 29만 명의 경찰관이 삶을 에는 혹한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4월 판문점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도 치밀하고 빈틈없는 경비로 성공을 뒷받침해줬다”며 “드러나지 않게 국민의 염원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준 경찰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촛불혁명을 언급하며 “경찰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과 함께했다”며 “국민의 앞을 막아서는 대신, 국민의 곁을 지켰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분명히 약속한다. 더 이상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국민과 경찰이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찰관 한명 한명이 국민이 내민 손을 굳게 잡을 때 민주주의

와 평화는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위한 정부의 약속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5만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자신의 사명이자 천직으로 여겨왔다”며 “경찰관의 노고에 합당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치안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법적 행이 위축되거나 경찰관 개인에게 부당한 책임이 주어지는 일이 없어야 국민의 안전이 더욱 철저히 지켜질 수 있다”며 “경찰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경찰관의 제복에는 ‘애국인민의 정신’이 배어 있다. 민주, 인권, 민생 경찰의 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자랑스러운 경찰의 길”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